

[홈](#) > [뉴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커피의 표준, 로스팅컴퍼니로움 세계를 향하다

세상을 향한 모든 이로움

2016년 12월 12일 (월) 10:56:44

박순태 기자 ✉ koreain@

“대한민국 커피의 표준, 로스팅컴퍼니로움 세계를 향하다”

세상을 향한 모든 이로움

(주)로스팅컴퍼니로움 이동희 대표



날선 바람과 뒤송송한 시국,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가 큰 요즘이다. ‘세상을 향한 모든 이로움’을 가치로 삼는 (주)로스팅컴퍼니로움(Roasting Company ROUM Co. Ltd)의 커피는 남다름이 더하다. 2012년 커피의 도시 강릉에 문을 연 로움(ROUM)은 깊고 진한 커피향으로 일상에 위안을 주고, 눈에 띄는 도전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커피문화를 선도해가는 청년벤처기업이다. 인테리어부터 컨셉, 조명, 부자재인 포크와 그릇까지 디테일에 강한 로움은 원스탑컨설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실적인 대안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Easy to Easy” 전략으로 커피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해 온 로움이 관리해주는 커피전문점이 평택, 판교, 이태원 등 전국 80여 곳에 이른다.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매장마다 상황과 현장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로움컨설팅은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오픈 후 일정기간을 함께 구축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주)로스팅컴퍼니로움 이동희 대표는 강릉에서 커피를 특집으로 하는 촬영을 진행하다가 커피문화에 매료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사업가로 강릉에서 카페장비와 재료 판매 A/S 유지 보수 회사인 로움을 창업한 이 대표는 이후 제조업인 커피로스팅 사업과 카페창업 컨설팅사업으로 확장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커피창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던 로

움은 올해 1월 15일 ㈜로스팅컴퍼니로움으로 법인 전환되었다. 단순 확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로스팅컴퍼니로움은 벤처기업 인증을 2016년 2월에 획득한 바 있다.



#### -확장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로움

㈜로스팅컴퍼니로움의 주요한 사업은 원두커피 제조 및 눈꽃빙수 파우더 4종 생산을 비롯해 카페장비의 판매 및 렌탈 카페용품의 판매 카페창업 컨설팅 그리고 바리스타 아카데미가 핵심이다. 2015년에는 원두커피 ‘골든빈블렌드’ 제조허가 및 출시, 고품질 간편형 커피 ‘슈퍼노바’ 출시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고객 중심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커피로 급성장하고 있다.

로움의 커피는 가치를 추구한다.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을 전하기 위해 커피농장에서 수확한 생두를 최적비율로 블렌딩한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스페셜 로스팅 원두인 ‘골든 빈 블렌드(Golden Bean Blend)’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로스팅 시스템장비를 활용해 1g의 오차 없이 균일한 로스팅 온도 등 최적의 조건을 맞춘 원두이다. 또한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생두를 주문접수와 동시에 로스팅한다. 이를 위해 수입일로부터 3개월인 최대 생두 보관일과 로스팅 직후 1일 이내 배송시스템을 적용한다. 아울러 강릉원주대 해양생물연구센터로부터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커피전문가 그룹의 품평을 통한 품질보증으로 안심까지 더하고 있다. 가맹점을 위해서는 특별한 카페창업 컨설팅도 제공하는데 이 대표는 축적된 기술력과 판매상권 분석, 메뉴 결정, 최신 트렌드 등의 정보를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창업자를 위한 카페장비의 사용 메뉴 레시피 제공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창업의 진행과정은 개설상담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조사 매장실측 및 견적제시 시공 및 개점 준비 최종점검 및 원칙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이 대표는 덧붙여 설명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로움만의 특별한 바리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카페창업 멘토링 과정, 바리스타 양성 과정, 커피 마스터 과정, 로스팅 마스터 과정, 특별 바리스타 대상의 아카데미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바리스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습으로 세분화시켜 참가자 모두의 만족을 꾀하고 있다.



-커피수입국에서 커피의 가치를 수출하다

외식업을 매개로 ㈜로스팅컴퍼니 로움은 해외진출에서도 괄목한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4개국에 진출하여 외식사업을 확장 중인 이 대표는 올해 9월 7일 한-라오스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하여 라오스 SNK와 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한국 전통 디저트 카페인 빙고 1호점을 2017년 1~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 2~3호점을 연달아 오픈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해 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3.25~27)에 눈꽃빙수를 브랜드로 독자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201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눈꽃빙수 파우더를 론칭하는 한편 중국의 제남국제식품박람회(5.20~22)에 눈꽃빙수 파우더 4종으로 참가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중국 내 2,0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키스키티'와 제휴 예정인 이동희 대표는 제남, 상하이, 충칭 등 주요 도시의 '키스키티' 매장 안에 '로움설빙카페'를 개설하고 곧 파우더 공급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사람의 가치를 사업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인재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는 이동희 대표는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꿈꾸고 일어나간다. 이 대표가 재능나눔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이유 역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라고 때문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아끼지않는 이 대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센터의 '카페 솔향', 한국장애인개발원 '하늘카페' 오픈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또한 지역 부녀회 운영사업 지원 일환으로 '카페 물레방아'창업과

농촌체험연계 '마을걷는 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안반데기', 단오문화협동조합 '카페 단오풍경' 개점도 지원하였다. 또한 삼척시의 청년사업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활용한 거리활성화사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을 계획 중인 이동희 대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에게 이로움을 더하기 위해 오늘도 숨가쁘게 뛰고 있다.

© 월간코리아인(<http://www.korea-i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